

ETF REPORT

2026. 6. 10

ETP전략팀

임은혜 팀장, Senior Analyst
e0124.lim@samsung.com

전 균 Senior Analyst
gyun.jun@samsung.com

한수진 Analyst
su.jin.han@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ETF 전략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거래동향 점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동향과 시장영향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레버리지(2X) 상품과 인버스(-2X)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라는 점과 반도체 주식의 급등세가 맞물려 출시 초반 거래가 급증하고 자산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장 초기 순자산총액이 각각 1조원 중반이었지만 6월 현재 순자산총액은 삼성전자 4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에 달하는 대형 상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에 힘입어 순설정금액이 각각 2조원이 넘는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입되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에 개인투자자 외에 외국인투자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고빈도거래 방식으로 주식-선물-ETF의 차익거래 기회를 모색하는 편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모멘텀 거래 중심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 레버리지 상품의 장중 거래패턴을 보면 주가와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상관성은 99%에 달하는 반면 일중 변동성은 주식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자산규모가 시장지수형 레버리지 ETF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현물과 주식선물을 동시에 편입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유입으로 주가와 파생상품에도 가격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 자산규모의 성장과 주가 변동성 추이에 따라 상장 초기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시장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적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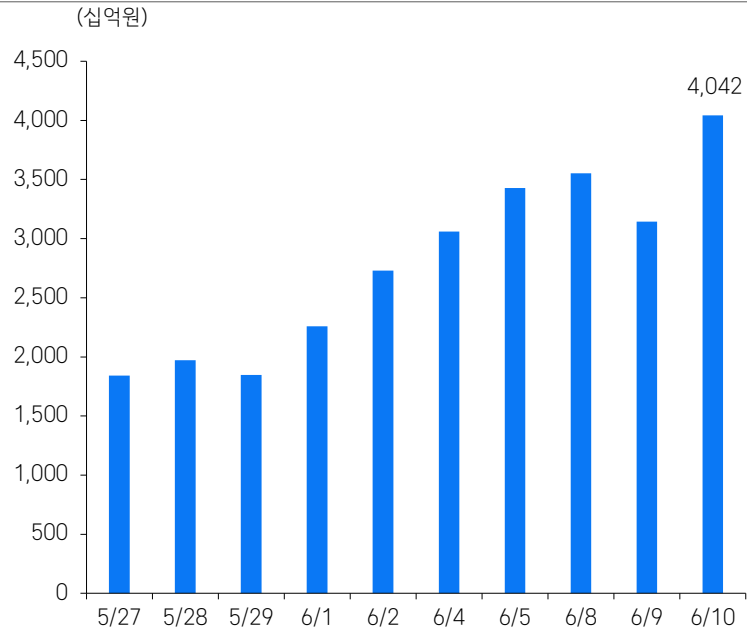
리서치센터 ETP전략팀

- 임은혜 팀장, 수석연구위원 | e0124.lim@samsung.com
- 전 균 수석연구위원 | gyun.jun@samsung.com
- 한수진 선임연구위원 | su.jin.han@samsung.com

(시장규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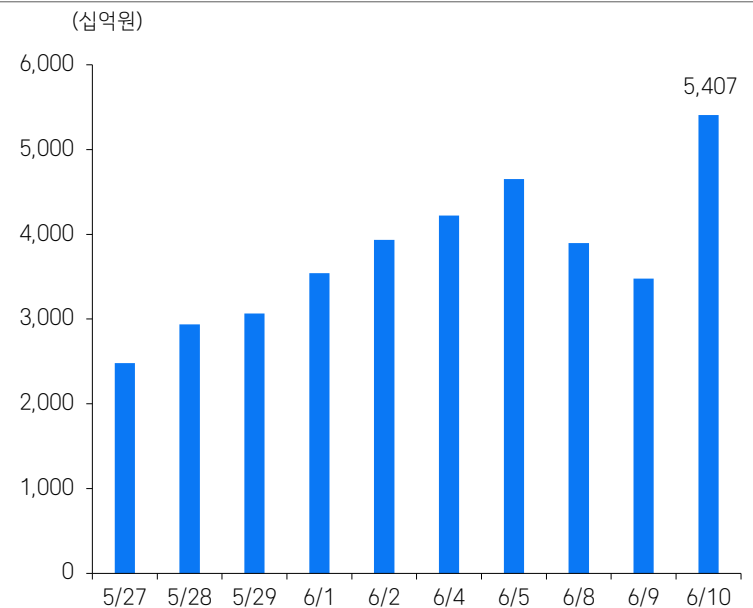
- 상장 이후 추세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산규모
- 상장 초기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 해당종목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 상장 후 최대 규모 기록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 (7종 합산)



참고: 당일 개장전 시가총액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 (7종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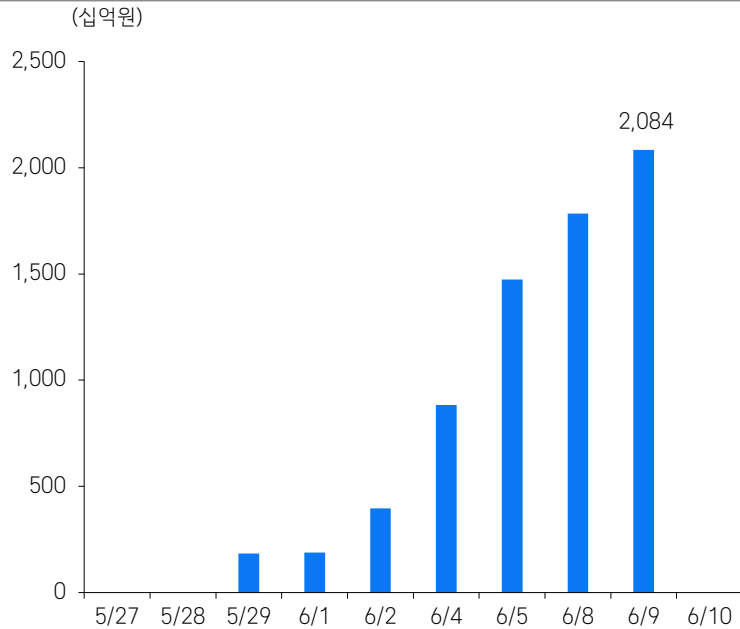


참고: 당일 개장전 시가총액
자료: KRX, 삼성증권

(시장규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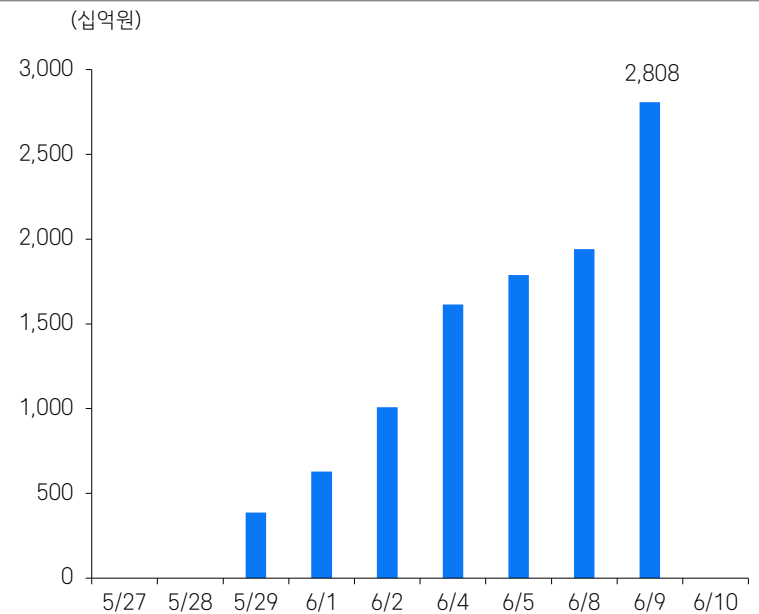
- 순설정-신규자금유입과 기존 지분의 환매를 고려한 실제 자금유입액 (주가변동에 따른 평가가치 배제)
- 삼성전자레버리지, 시총 4.0조원 중 순설정 2.0조원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시총 5.4조원 중 순설정 2.8조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순설정 누적규모 (7종 합산)



참고: 순설정규모는 T+2일 지연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순설정 누적규모 (7종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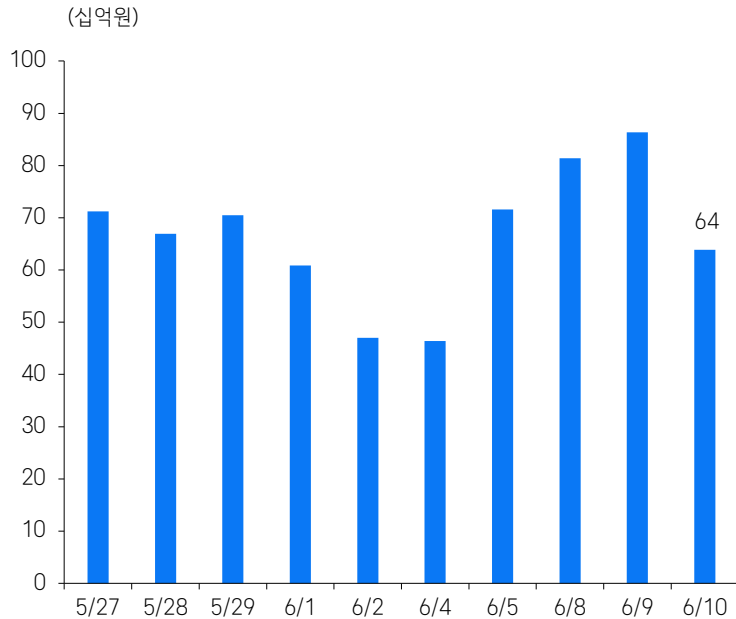


참고: 순설정 규모는 T+2일 지연
자료: KRX, 삼성증권

(시장규모)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인버스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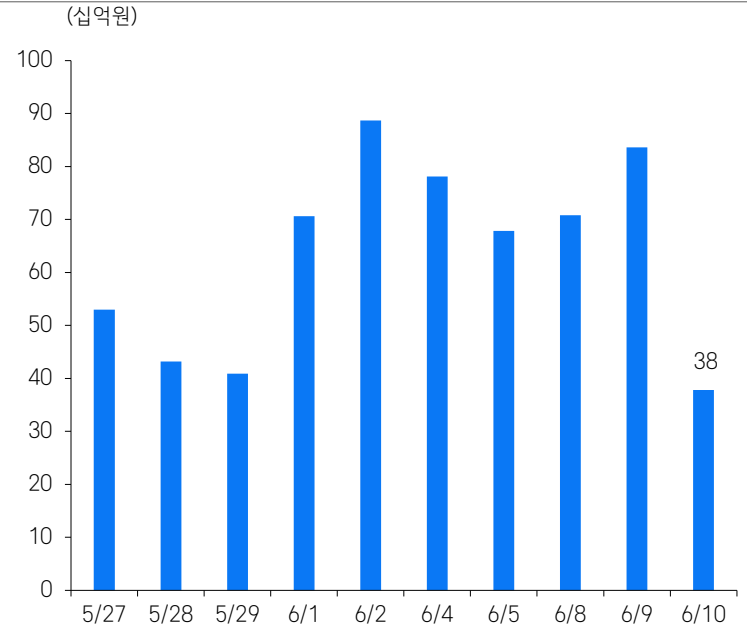
- 레버리지 상품과 달리 인버스 상품의 시가총액은 정체 상태
- 가치평가액 이상의 신규자금 유입은 관망세
- 인버스 상품, 주가 상승시 자금유입 & 주가 하락시 자금유출의 역설적 투자 패턴

삼성전자 인버스 상품 시가총액



참고: 당일 개장전 시가총액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인버스 상품 시가총액



참고: 당일 개장전 시가총액
자료: KRX, 삼성증권

(투자자) 주식현물과 레버리지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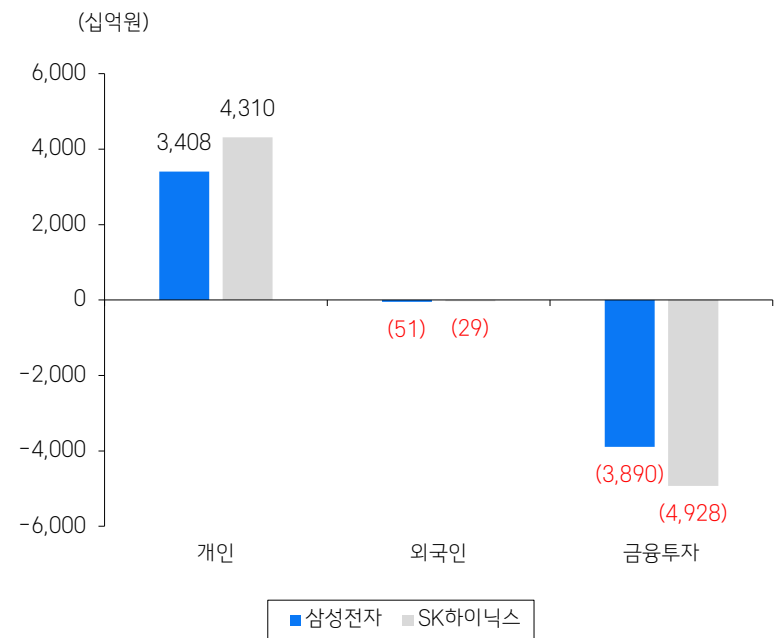
- 개인투자자, 주식현물과 레버리지 상품 동반 순매수
 - 삼성전자 10.1조원 vs 3.4조원, SK하이닉스 6.1조원 vs 4.3조원
 - 투기적 수요의 레버리지 집중 (주식현물에 대한 투기적 수요 분산 효과)
- 금융투자, 레버리지 상품 공급을 위한 매도 & 추가설정을 위한 주식매수 병행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투자자별 누적순매수



참고: 5/27 ~ 6/9
자료: KRX, 삼성증권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별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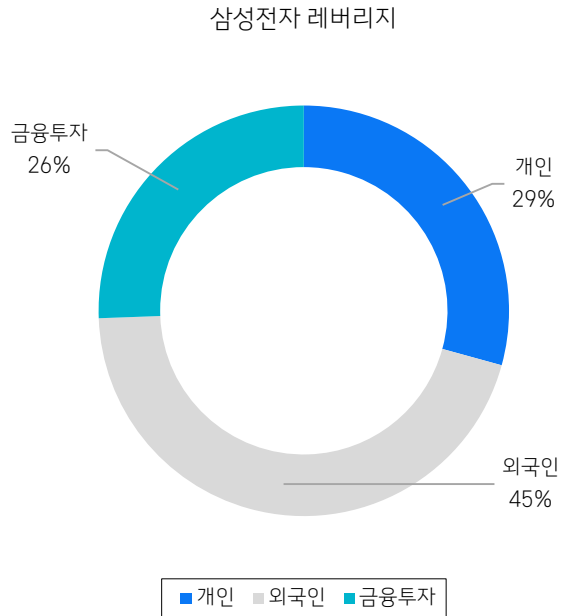


참고: 5/27 ~ 6/5
자료: KRX, 삼성증권

(투자자)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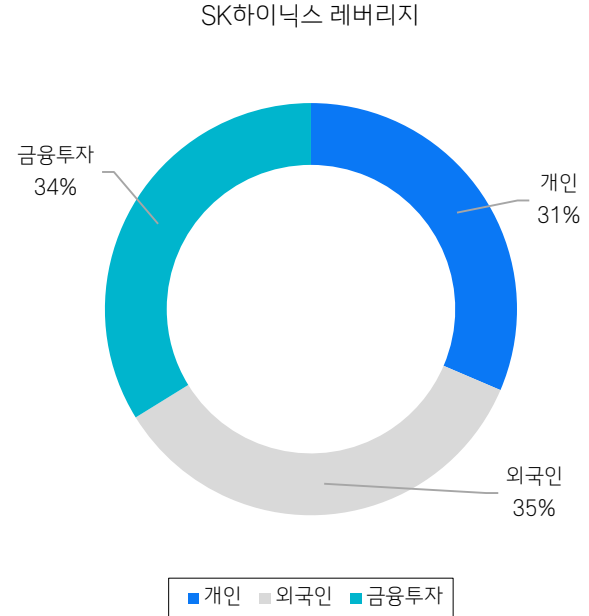
- 외국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35~45% 거래비중 차지
 - 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중심의 현물-선물-ETF 차익거래 진행
 - 단일종목의 거래 용이성 & 호가차이 & 비용 유리
 - 주식현물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와 달리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Long/Short 빈번하게 교차

삼성전자 레버리지 투자자별 거래규모



참고: 5/27 ~ 6/9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자별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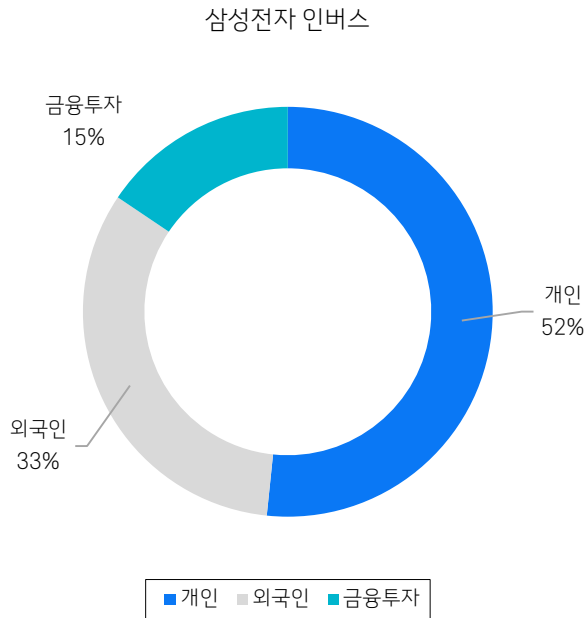


참고: 5/27 ~ 6/9
자료: KRX, 삼성증권

(투자자) 인버스 상품, 개인 중심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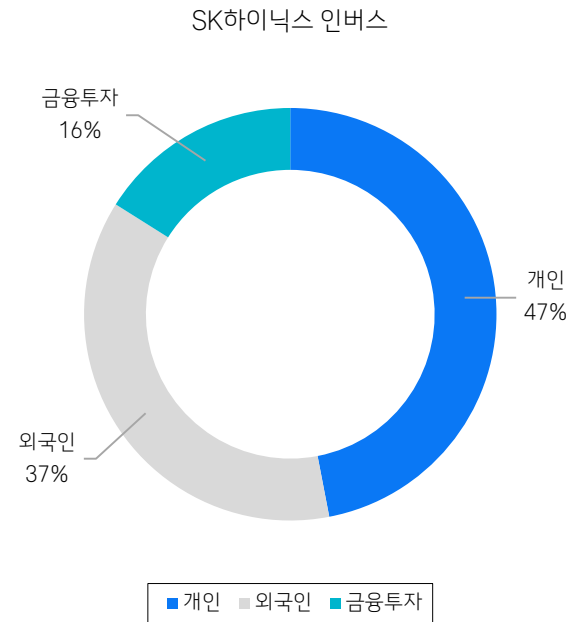
- 인버스 상품, 개인 거래비중 50% 전후
→ 인버스 상품, 선물지수 추종으로 선물과ETF 차익거래에 국한 (상대적으로 거래기회 부족)
- 외국인, 30% 이상 거래 참여
→ 레버리지와인버스의 포지션 헤징까지 고려한 시장 참여

삼성전자 인버스 투자자별 거래규모



참고: 5/27 ~ 6/9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인버스 투자자별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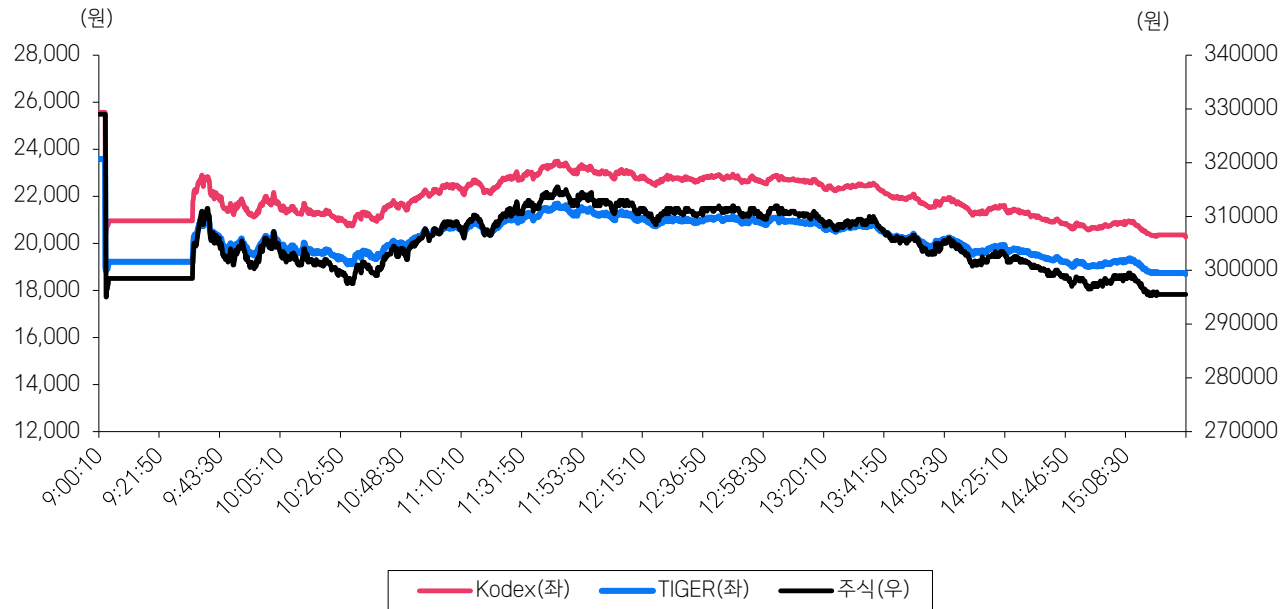


참고: 5/27 ~ 6/9
자료: KRX, 삼성증권

(가격 영향) 주가 급락(6월8일) 삼성전자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 6/8 주가급락, 주식 -7.90% vs Kodex -20.71% & TIGER -20.69%
- 6/8,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상관성 평균 99.1% vs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상관성 95.1%
- 장중 가격수익률 변동성(10초간격), 주식 0.26% vs 레버리지 평균 0.52% → 레버리지 효과로 변동성 증폭

삼성전자 주식현물 & 레버리지 상품 (Kodex, TIGER) 6월8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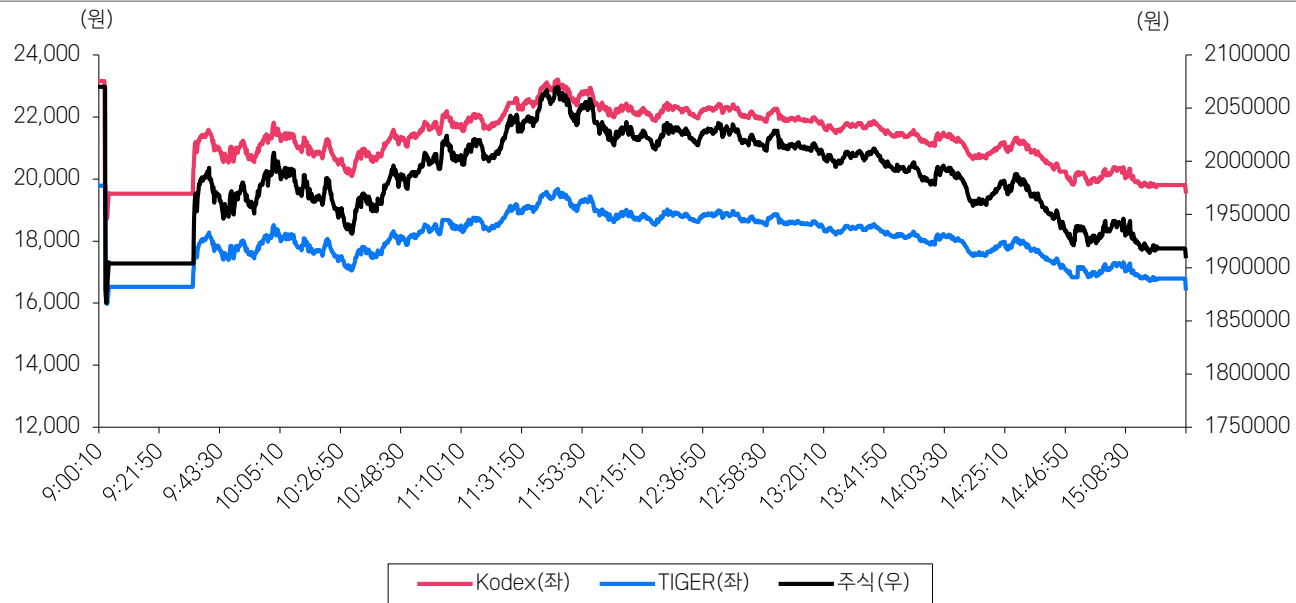


참고: 10초단위, 개장후 C.B 발동으로 거래중지
 자료: KRX, 삼성증권

(가격 영향) 주가 급락(6월8일) SK하이닉스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 6/8 주가급락, 주식 -4.44% vs Kodex -15.35% & TIGER -16.73% (주가대비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률 4배)
- 6/8,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상관성 평균 99.4% vs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상관성 98.9%
- 장중 가격수익률 변동성(10초간격), 주식 0.23% vs 레버리지 평균 0.51% → 레버리지 효과로 변동성 증폭

SK 하이닉스 주식현물 & 레버리지 상품 (Kodex, TIGER) 6월8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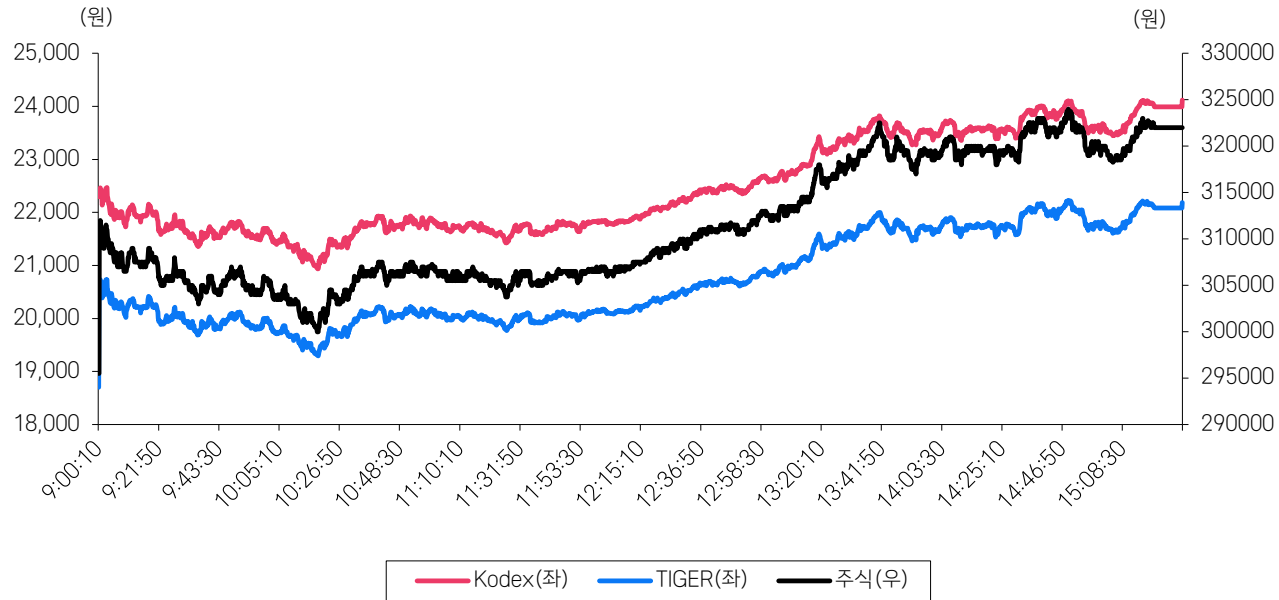


참고: 10초단위, 개장후 C.B 발동으로 거래중지
 자료: KRX, 삼성증권

(가격 영향) 주가 급등(6월9일) 삼성전자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 6/9 주가 급등, 주식 +10.66% vs Kodex +18.97% & TIGER +18.60% (주식현물 상승률에 비해 레버리지 상품 상승률 낮은 편)
- 6/9,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상관성 평균 99.7% vs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상관성 99.8%
- 장중 가격수익률 변동성(10초간격), 주식 0.15% vs 레버리지 평균 0.25% → 레버리지 효과로 변동성 증폭 (하락시보다 레버리지 변동성 낮은 편)

삼성전자 주식현물 & 레버리지 상품 (Kodex, TIGER) 6월9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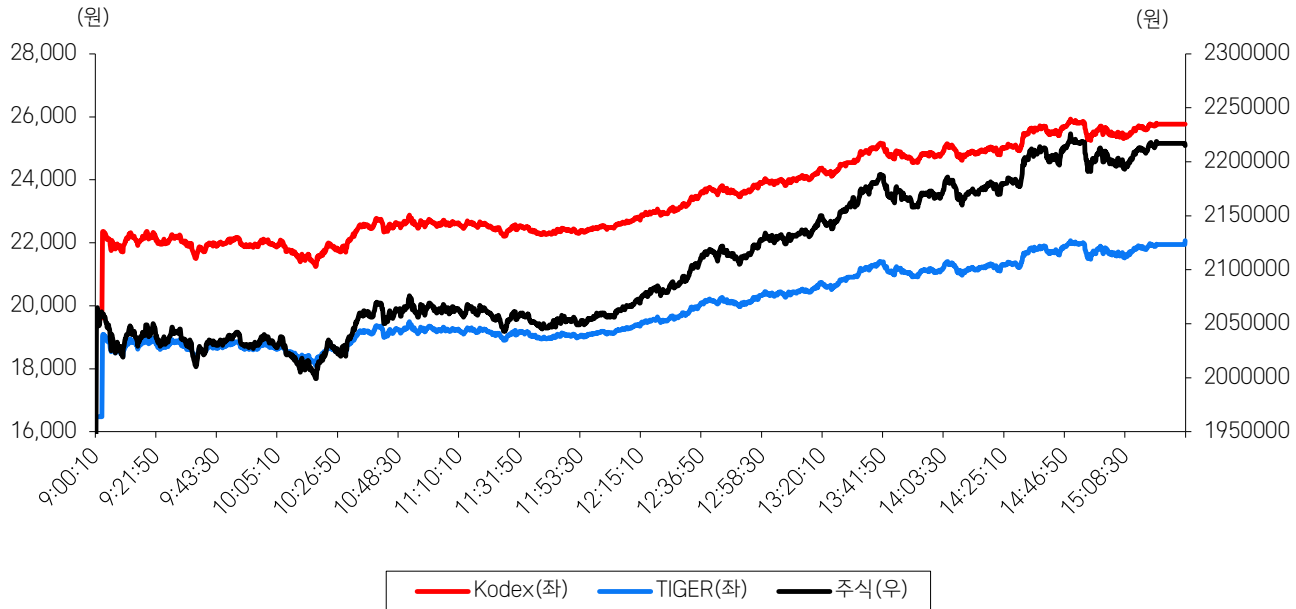


참고: 10초단위
자료: KRX, 삼성증권

(가격 영향) 주가 급등(6월9일) SK하이닉스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 6/8 주가급락, 주식 +17.01% vs Kodex +31.42% & TIGER +33.93%
- 6/8,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상관성 98.7% vs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상관성 99.8%
- 장중 가격수익률 변동성(10초간격), 주식 0.17% vs 레버리지 평균 0.32% → 레버리지 효과로 변동성 증폭 (하락시보다 레버리지 상품 낮은 편)

SK하이닉스 주식현물 & 레버리지 상품 (Kodex, TIGER) 6월9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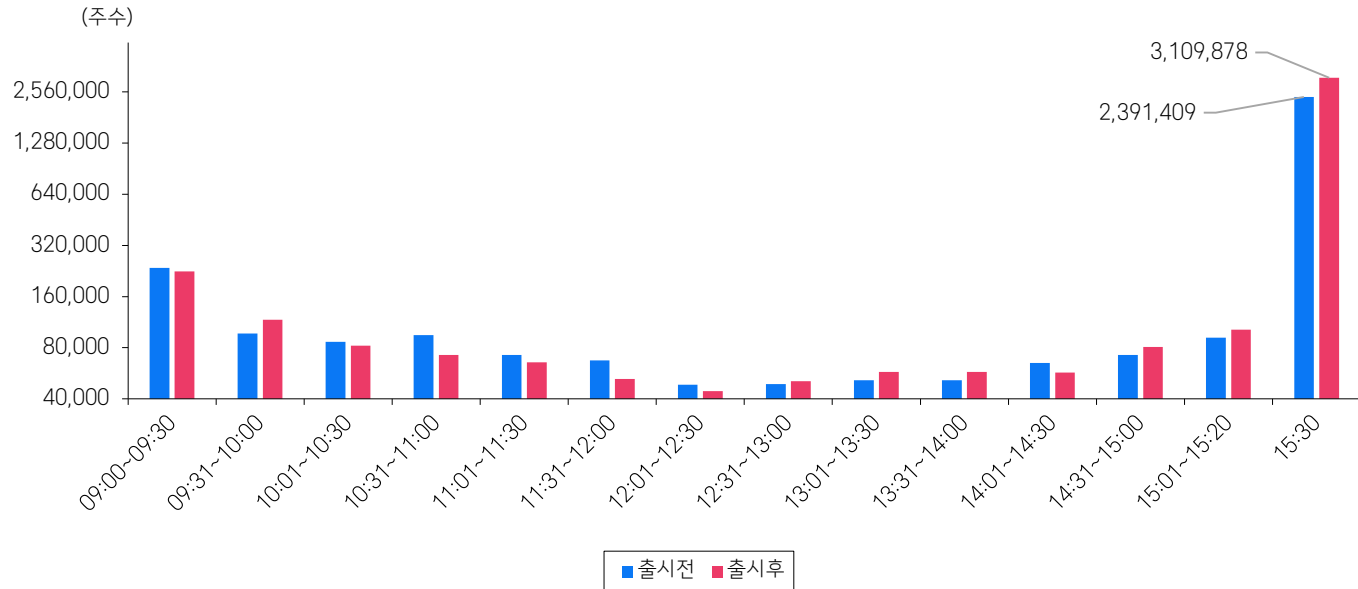


참고: 10초 단위
 자료: KRX, 삼성증권

(유동성 영향) 출시전후 삼성전자 장증 거래량 분포

- 레버리지상품 출시이후 장 마감(15:30분) 거래량 증가 (출시전 239만주 vs 출시후 311만주)
- 오후 2시반 이후 거래량 점증
- 장 마감-레버리지 리밸런싱 및 연동 매매 증가
- 주식현물 증가 유동성 개선 효과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후 장증 거래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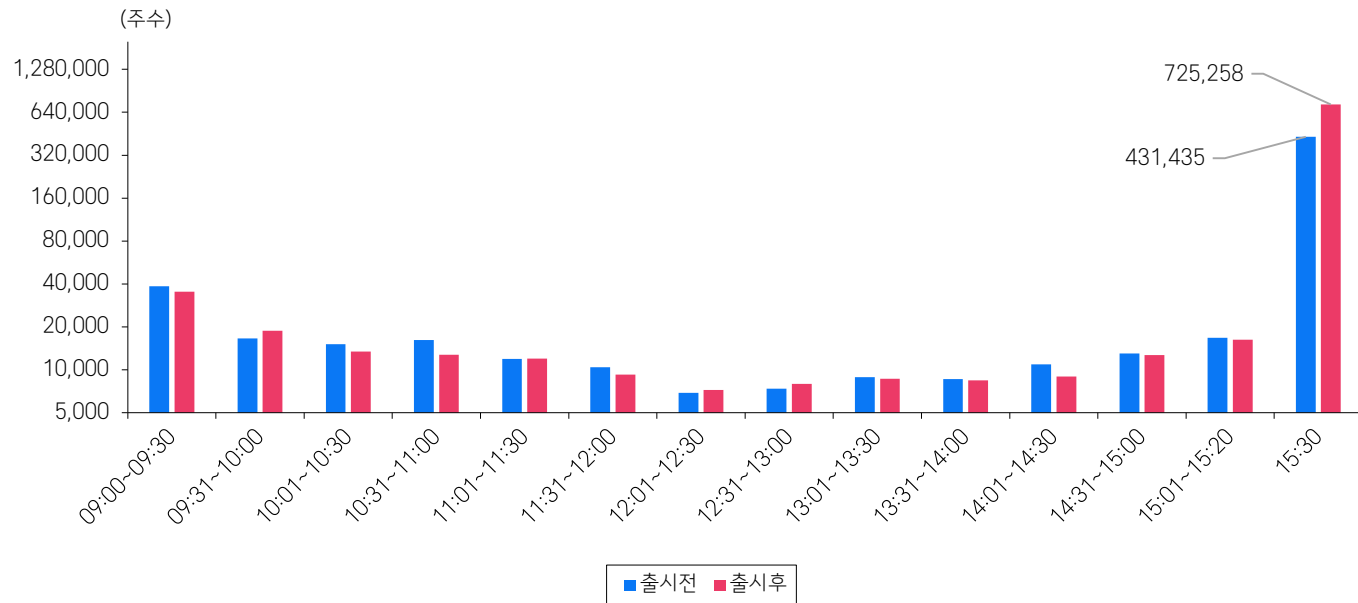


참고: 거래량 축은 로그 표시, 출시전-05/04~05/26, 출시후-05/27~06/09, 1분Data적용, 기간별 평균치
 자료: KRX, 삼성증권

(유동성 영향) 출시전후 SK하이닉스 장중 거래량 분포

- 레버리지상품 출시이후 장 마감(15:30) 거래량 증가 (출시전 43만주 vs 출시후 72만주)
- 장 마감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 증가 거래량 증가폭 큰 편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시총 차이 및 모멘텀 투자 집중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후 장중 거래량 분포



참고: 거래량측은 로그 표시
자료: KRX, 삼성증권

(자산구성)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자산구성 예시

- 추적지수 유형에 따라 자산구성 상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지수(주식지수) → 주식 현물 + 주식 선물 병행 구성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물지수 → 주식선물로만 구성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자산구성 사례

추적지수 : 주식 지수 (레버리지)



추적지수 : 선물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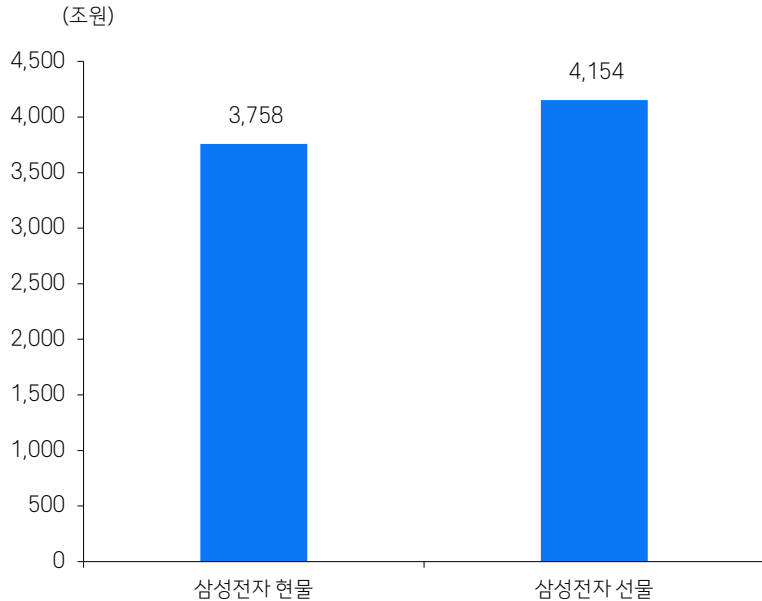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자산구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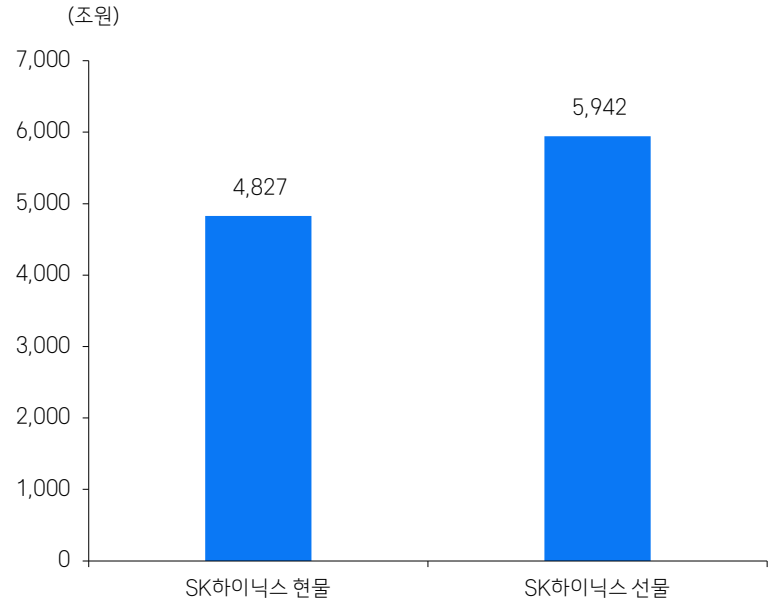
- 삼성전자 레버리지, 주식현물 3.7조원 & 주식선물 4.1조원 (1.1배)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주식현물 4.8조원 & 주식선물 5.9조원(1.2배)
- 주식선물, 주식현물 대비 Over weight → 현물편입 부담감소 & 리밸런싱 용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자산구성 (7종목 합산)



참고: 6월 10일 시가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자산구성 (7종목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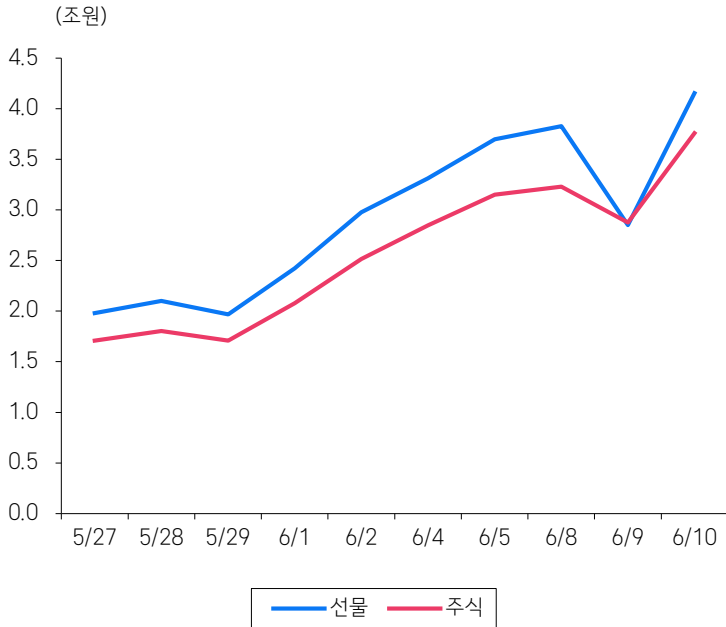


참고: 6월 10일 시가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자산구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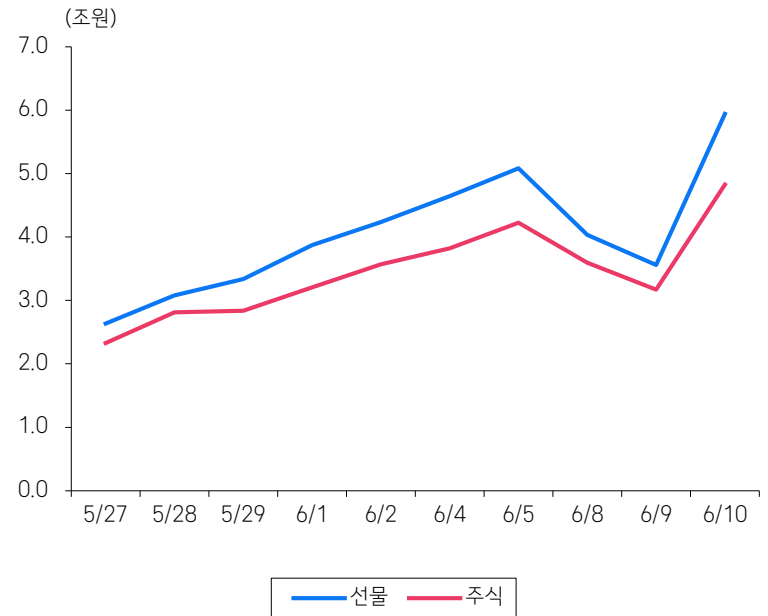
- 주식현물 대비 주식선물 비중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
→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주식선물 비중 유지
- 현물 및 선물의 지속적인 매입으로 해당 주식의 가격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

삼성전자 레버리지 현물 & 선물 자산추이(7종목 합산)



자료: KRX, 삼성증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현물 & 선물 자산추이 (7종목 합산)



자료: KRX, 삼성증권

상품비교, 레버리지:주식현물:주식선물

- 주식선물, 레버리지 상품의 선물매수 포지션 소화 가능한 규모 & 주식현물에 버금가는 유동성
→ 주식선물, 레버리지 상품의 설정/환매 및 헤지거래에 충분한 시장규모와 유동성 확보
- 금융투자, 주식현물 매수 & 주식선물 매도 (매수차익거래 진행)
→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주식선물 고평가압력을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 포착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비교

구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주식현물	주식선물	레버리지	주식현물	주식선물
시가총액 (6/9, 십억원)	4,042	1,911,733	21,319 (미결제약정 환산)	5,407	1,593,602	39,207 (미결제약정 환산)
일평균 거래대금 (5/27~6/9, 십억원)	493	21,922	21,172	641	23,089	26,660
개인 누적순매수 (5/27~6/9, 십억원)	3,408	10,115	-1,137	4,310	6,109	-886
금투 누적순매수 (5/27~6/9, 십억원)	-3,890	2,729	-1,065	-4,928	1,580	263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순자산과 익스포져, 리밸런싱 사례

- 리밸런싱, 익스포져와 순자산의 편차를 조정하는 역할
 - 리밸런싱 = (목표 레버리지) - (펀드 Exposure)
 - 레버리지 = NAV / t-1 X 2배 vs Exposure = 레버리지 t-1 * 수익률
- 레버리지 상품, 상승시 리밸런싱 자산 확대 & 하락시 배율로 리밸런싱 자산 축소 → 종가 집중매매 발생

2X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사례

주가	수익률	NAV	레버리지	Exposure	리밸런싱	주가	수익률	NAV	레버리지	Exposure	리밸런싱
100	-	100.0	200	-	-	100	-	100.0	200	-	-
102	+2%	104.0 100.0* (1+2*2%)	208.0 (104*2)	204.0 200* (1+2%)	+4.0 (208-204)	98	-2%	96.0 100.0* (1+2*-2%)	192.0 (96.*2)	196.0 200* (1-2%)	-4.0 (192.0-196.0)
104	+2%	108.2 104.0* (1+2*2%)	216.3 (108*2)	212.2 208.0* (1+2%)	+4.2 (216.3-212.2)	96	-2%	92.2 96.0* (1+2*-2%)	184.3 (92.2*2)	188.2 196.0* (1-2%)	-3.8 (184.3-188.2)
106	+2%	112.5 108.2* (1+2*2%)	225.0 (112*2)	220.6 216.3* (1+2%)	+4.3 (225.0-220.6)	94	-2%	88.5 92.2* (1+2*-2%)	176.9 (88.5*2)	180.6 184.3* (1-2%)	-3.7 (176.9-180.6)

참고: 계산상 편의를 위해 소수점 2자리부터 절사
자료: 삼성증권

(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사전교육 및 주문증거금

- 금융투자교육원의 레버리지/인버스 ETP 강의(1시간) 의무수료
 - 일반교육: 지수형 레버리지/인버스 ETP, 심화교육: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 기존 거래경험 및 투자상품에 따라 의무교육 차등화
- 신규 거래시 주문증거금 1천만원 필요

기존 레버리지 ETP 거래경험에 따른 심화교육 필요여부

구분	기존 레버리지 ETP 거래경험	심화교육(1시간)	일반교육(1시간)
사례 1	경험 전무 (국내/해외 모두 처음)	필수	필수
사례 2	국내 지수 레버리지 경험자 * 예 KOSPI200 레버리지 ETF	필수	면제 (기 수수료 가정)
사례 3	해외 지수 레버리지 경험자 * 예 TQQQ	필수	면제 (기 수수료 가정)
사례 4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경험자 * 예 TSLL	면제	면제 (지수 레버리지 경험X, 필수)

자료: 삼성증권

(참고) 과세 차이

- 국내 주식형 ETF(Passive형)
 - 매매차익 비과세 &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과세 부과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과세 & 분배금 발생시 배당소득과세 부과
- 국내 상장 ETF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 차이

구분	국내 주식형 ETF	국내 파생상품형 ETF	해외 레버리지 ETF
매매차익	비과세	보유기간 과세 배당소득세 15.4% Min (매매차익, 과표증분)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250만원)
분배금	배당소득과세 (15.4%)	배당/이자소득과세 (발생시 15.4%)	해외 원천징수 후 차감 공제 (15.4%)

자료: 삼성증권

(참고) 주요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레버리지 복리효과	해당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 2 배에 연동되도록 운용함. 레버리지 투자가 유발하는 복리효과로 인해 상품의 기간수익률은 기초자산 기간수익률의 2배와 유사하지 않을 수 있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레버리지 투자의 복리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상품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기초자산이 하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괴리율 위험	해당 상품은 내재가치(NAV)와 시장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상품의 장중 호가 및 거래 가격이 NAV 대비 할증 또는 할인되어 거래될 수 있으며, 레버리지 효과로 괴리율의 정도가 커질 수 있음.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등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거래가 불가능하여 호가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품의 시장가격과 NAV 간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음.
일간 수익률 추종에 따른 위험	본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 2 배에 연동되도록 운용함.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자 수익률은 해당 상품의 일별 수익률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해당 기간의 기초자산 수익률의 단순 2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초자산의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손실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집중투자 위험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가 제한됨. 개별 기업의 사건 및 가격 변동성에 따라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과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단일종목은 시장 전체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고유위험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음.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레버리지 투자위험	기초자산 가격등락에 비해 2배의 가격 등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하락률에 비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장기보유 비적합	본 상품을 장기보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레버리지로 인한 복리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과와 상이한 성과를 볼 수 있음. 심지어 일정기간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은 손실을 보거나 기초자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볼 수 있음.
투자지표 오해	본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중 재조정 여부와 현금성 자산보유 여부, 파생상품 롤오버 비용, 가격제한폭과 추적오차, 복리효과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수익률 대비 ± 2 배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만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예상 수익률이나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참조지수의 산출구조와 운용방식 등으로 인해 성과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현선물 베이스스 위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선물)의 가격 차이(베이스스)가 유동성과 금리/배당 등의 이슈로 불안정한 등락을 보이면, 해당 상품의 추적오차의 확대로 인해 일일 목표수익률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존재함.
Rep 불가능 위험	환매조건부매도(Repo)거래를 통해 파생상품의 증거금을 확보하여 레버리지 전략을 추구함. Repo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전략의 지속적 인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 증권이 매도로 대응할 경우 NAV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자산운용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설명서 참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